

임진왜란 시기 南原 소재 명군 유적과 작품 고찰*

朴 現 圭**

— <目 次> —

I. 서론	VI. 範谷 天使臺와 長法山
II. 龍城館과 四詠樓	VII. 葛峙 天使峰
III. 廣寒樓와 上漢槎	VIII. 屯德 金復興宅
IV. 永思亭	IX. 결론
V. 龍頭亭과 釣磯	

I. 서론

남원은 백제 온조왕 때 古龍이라 불렀다가 초고왕 때 帶方으로 고쳤다. 685년(신라 신문왕 5)에 南原小京이 설치되었고, 757년(경덕왕 16)에 대방을 남원으로 고쳤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남원부가 되었다. 1310년(충선왕 2)에 대방으로 환원되었다가, 1360년(공민왕 9)에 다시 남원으로 복구되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에 도호부가 되어 1군 18현을 관할했다. 1654년(효종 5)에 전라좌영을 설치했다. 1739년(영조 15)에 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1750년(영조 26)에 다시 남원부로 회복되었다. 龍城은 남원의 별호이다.

임진왜란 때 남원은 호남의 보장이 되고 양남의 교통로를 이어주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전란 초기부터 많은 명군들이 남원으로 들어와 호남

* 順天鄉大學校 學術研究論文

** 順天鄉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방어에 나섰고, 또한 남원을 중간기착지로 삼아 여러 지역으로 오갔다. 일본열도로 가는 명 책봉사절이 한양에서 남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영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활용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조명연합군과 일본좌군 사이에 치열하게 펼쳐진 남원성 전투의 현장이 되었고, 곧이어 명군부가 사로병진전략을 펼칠 때 西路軍의 후방주둔지 및 감군지휘소로 활용되었다.

남원의 지방지인 《龍城誌》, 《南原邑誌》를 비롯한 남원관련문헌에 임진왜란시기 명군들이 남원에서 활동한 상황이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 남원 일대에서 명군과 관련된 유적들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유적이나 작품은 임진왜란시기 명군들의 남원 활동사항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본 문장에서는 임진왜란시기 남원을 배경으로 한 명군들의 유적과 작품들을 수집하여 집중 분석해본다. 다만 남원에 명장 劉綎과 관련된 유적과 작품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따로 떼어 논술한다.

II. 龍城館과 四詠樓



龍城館石物

691년(신문왕 11)에 남원에 객사가 건립되었고, 훗날 훼멸되었다. 1470년(성종 1) 경에 남원부사李文炳과 관관李績이恤民館을 세웠다.¹⁾ 태조 이성계의 전패를 모시고 민초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명칭을 따왔고, 주로 관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객사로 사용되었다. 1597년(선조

30) 8월 남원성 전투 때 소실되었다가 1614년(광해군 6)에 부사 鄭東高이

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9 〈南原都護府·恤民館〉: 「即客官也. 府使李文炳·判官李績建」

세우고자 했으나 완성시키지 못했다. 1691년(숙종 17)에 부사 鄭陝이 증건했다.²⁾ 건물 규모가 웅장하여 남원 廣寒樓, 關王廟와 더불어 남원 3대 옛 건축물로 불리었다.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현 남원 東忠洞의 용성초등학교에 자리하고, 본과 입구에 기단석, 운동장 한 곁에 여러 석물들이 모아져있다. 四詠樓는 용성관 동쪽에 있는 누각이다. 1470년(성종 1) 경에 남원부사 이문병과 판관 이적이 세웠다. 영조 연간에 이미 훼손되었다.³⁾ 현 남원문화원 북쪽에 자리한다.

陳雲鴻은 武林(현 절강 항주) 출신이다. 遊擊將軍事都指揮使가 되어 남원을 전후 네 차례 들렀다. 1594년(선조 27) 12월 27일에 일본군과 강화협상을 하고 군사동향을 살피기 위해 한양을 거쳐 남원으로 들어와 용성관에 머물렀다. 이때 駱守備(낙상지), 葉參將도 전주를 거쳐 남원으로 들어왔다.⁴⁾ 이듬해 정월 초하룻날에 도원수 權慄과 접반사 李時發이 진운홍을 용성관에서 접대했다.⁵⁾ 2일에 진운홍은 남원을 떠나 영남으로 향해갔고, 곧이어 동래의 일본진영에 들어가 강화협상을 진행했다. 동월 24일 일본진영에서 돌아와 거창에 도달했고, 28일에 다시 남원을 들렀다. 2월 1일에 남원을 떠나 한양을 거쳐 본국으로 들어갔다.⁶⁾

진운홍은 남원에 체류한 짧은 여정 속에서 전후 시 3수를 지었다. 12월 28일에 용성관에서 낮잠을 자다가 피꼬리와 까치가 시끄럽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동쪽에 있는 四詠樓에 올라 주변 풍광을 돌아보고 감흥해서 칠언율시를 지었다.⁷⁾

2) 《龍城誌》 권2 〈龍城館〉: 「卽客舍, 古之恤民館也. 丁酉倭亂城陷日, 恤民館, 爲七忠臣自焚致燒, …… 今上卽光海六年庚申之春, 府使鄭東高, 改立未完, 至辛未秋, 府使鄭陝修粧丹雘, 揭號龍城館。」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南原都護府·四詠樓〉: 「在客舍東. 府使李文炳·判官李績建.」 《龍城誌》 권2 〈四詠樓〉 중 〈신증〉: 「今廢, 只有石柱二.」

4) 《亂中雜錄》 갑오년 12월 12일, 27일조. 《象村集》에 기술된 명군 진영 명단을 보면 駱姓 장수로는 駱尚志 1명만 있고, 葉姓 장수로는 葉邦榮, 葉朝桂, 葉鱗, 葉思忠 등 여러 명이 있다.

5) 《난중잡록》 을미년 1월 1일조.

6) 《난중잡록》 을미년 1월 2일, 24일, 28일, 2월 1일조.

歲暮京南客未回	세모에 燕京 남쪽 객이 돌아가지 못하고
那堪惆悵此登臺	어찌 서글프게 이 누대에 오르나
萬山雪積迷蒼翠	만산에 쌓인 눈이 푸른빛을 뒤덮고
千里烟嵐蔽草萊	천리에 자욱한 안개가 무성한 풀을 가리구나
日午庭前鶯擾夢	한낮에 뜰 앞의 피꼬리가 꿈을 깨우고
朔風樓外鵲喧槐	삭풍 부는 누대 밖의 까치가 왜나무에서 울부짖네
天涯回顧無窮思	하늘 끝닿는 곳 돌아보니 수많은 생각이 일어
憂國空慙廊廟才	우국에 조정의 재사임이 공연히 부끄럽구나

여기에서 왕사로 도처를 떠돌아다니는 진운홍의 소회가 잘 나타나 있다. 진운홍은 눈앞에 온 산에 내린 눈이 푸름을 자랑하는 솔을 뒤덮고 있고 천리나 깔린 자욱한 이내가 초야를 가리는 멋진 풍광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편안하지 못했다. 당시 조정의 명을 받아 멀리 이국땅에 와서 일본군과 강화협상을 펼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심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시의 마지막에서 천에 사방을 돌아다녀보니 나라가 근심되고, 자신은 조정의 인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공연히 부끄럽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때 진운홍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칠언절구를 지었다.

仕路驅馳三十年	벼슬길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30년에
歷來勞苦未容安	노고 겪느라고 얼굴 편안치 않고
今冬又奉宣傳命	올 겨울 또 선전관 명을 받아
萬里遐荒枕雪眠	만리 먼 황량한 곳에서 눈을 베고 자네

여기에서 진운홍이 관직에 나선지 30년 동안 왕사로 인하여 온갖 노고를 겪으면서 얼굴 한 번 편안하게 펴지 못하였는데, 금년 겨울에 또 다시 조정의 명을 받아 멀리 만 리나 멀리 떨어진 이국땅 황막한 곳에서 눈을

7) 《난중잡록》 갑오년 12월 28일조 陳雲鴻 시: 「午睡聞鶯鵲爭喧, 登臺見雪, 有感云。」

베고 잔다고 하는 고난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또 진운홍이 일본진영에서 임무를 마치고 남원으로 돌아와서 지은 칠언 절구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지난 입춘에 京華의 객이 되었고, 올해 입춘에도 집을 떠나 있었다. 그동안 먼 길을 떠돌아다닌다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고달픈 모습을 읊었다.⁸⁾ 1595년(선조 28) 6월에 진운홍은 명 책봉사 李宗誠 등 일행을 모시고 또 한 차례 남원으로 들어왔다.

Ⅲ. 廣寒樓와 上漢槎

남원 廣寒樓苑은 멋지게 짜인 누각과 수려한 주변 풍광이 잘 어우러져 조선을 대표하는 정원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선 초 黃喜가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조그만 누각을 짓고 廣通樓라고 불렀다. 1434년(세종 16)에 閔恭이 다시 새 누각을 세웠고, 1444



廣寒樓

년(세종 26)에 鄭麟趾가 달나라에 옥황상제가 세운 궁전이란 뜻을 가진 廣寒清虛樓로 고쳤고, 나중에 줄여서 廣한루로 불려졌다.⁹⁾ 1638년(인조 16) 등 여러 차례 증건되었고, 오늘날 보물 281호로 지정되었다.

8) 《난중잡록》 갑오년 12월 27일조 陳雲鴻 시: 「去年今日客京華, 今日新春又離家, 贏得朱顏途路遠, 令人傷感自嗟呀。」

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南原都護府·廣寒樓〉: 「〈黃守身記〉: 府南二里許, 地勢高平敞闊, 有小樓曰廣通, 歲久頽廢, 歲甲寅府使閔君恭改起新樓, 丁巳柳君之禮, 繼加丹雘, 甲子河東鄭相國麟趾易名以廣寒。」

광한루 앞쪽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원래는 물이 띠처럼 가느다랗게 있었는데, 선조 연간에 정철이 크게 개척하고 평평한 호수로 다듬어놓았다.¹⁰⁾ 호수와 그 주변에 烏鵲橋, 瀛洲閣, 玩月亭, 春香祠 등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上漢槎는 원래 은하수에 오르는 전설상의 뗏목인데, 여기에서는 광한루원의 호수에서 띄운 뗏목을 지칭한다.¹¹⁾ 광한루원에서 누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호수에서 뗏목을 타고 바라보면 누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광한루원은 명군들이 자주 들렀던 장소였다. 임진왜란 때 남원 의병장으로 활동한 趙慶男의 《亂中雜錄》에 宋大斌이 광한루에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송대빈은 廣寧 右衛 출신이다. 1593년(선조 26)에 유격장군으로 마병 2천을 이끌고 남원으로 들어왔다. 7월에 송대빈은 남원 남쪽의 숙성령에서 적들을 물리친 후 광한루에 올라 쉬었는데, 이때 누대에 걸린 옛 사람의 시를 보고 감흥 받아 칠언율시를 지었다.¹²⁾

戰罷歸來倦倚樓	전쟁 마치고 돌아가다 피곤해 누대에 기대
洗兵飲馬大溪頭	큰 내가에서 병기 씻고 말 물 먹였다
八山草木千年勝	팔방 산의 초목이 천년이나 아름답고
四野烽烟一望收	사방 들관의 봉수 연기가 일시에 거두었다
破竹已乘今日勢	과죽지세를 거둔 오늘 날에
採蓮猶憶昔時遊	채련하는 옛 놀이가 기억나네
明朝迫逐嚴諸部	넬 아침에 엄한 여러 부대를 따라
萬里勲名正此求	만리 훈명을 이에 구하리오

조선 말기에 千氏 집안에서 千萬리의 사적을 모아 만든 《思庵實紀》가 있다. 이 책자에 천만리의 〈登南原廣寒樓〉를 따라 제영한 제공들의 시들

10) 《용성지》 권2 〈上漢槎〉: 「古時樓前, 但水細如帶, 監司鄭澈拓而大之, 乃作平湖。」

11) 《용성지》 권2 〈上漢槎〉: 「湖中有小艇, 名曰上漢槎。」

12) 《난중잡록》 기사년 7월 9일조: 「天朝征倭遊擊將軍廣德宋大斌大捷于南原南宿星嶺, 歸休廣漢, 敬次樓韻。」

이 수록되어 있는데, 상기 시의 저자를 呂永明이라고 적어놓았다. 다만 《사암실기》의 편찬시기가 후대에 만들어졌고, 또한 자료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관계로 상기 시의 저자를 《난중잡록》의 기록을 따라 송대빈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상기 시의 압운은 樓·頭·收·遊·求자이다. 조선 전기에 광한루에서 동일 압운으로 지은 시인으로는 徐居正, 李石亨, 成任, 許琛, 李福男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송대빈이 광한루에서 누구의 작품을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누대의 이름을 광한청허루로 바꾼 서거정의 작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날 송대빈은 숙성령에서 적들을 물린 친 다음이라 마음이 한껏 들떴다. 호숫가에서 병기를 씻고 말에게 물을 먹인 다음 누대에 올라가 빼어난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이때 광한루 주변에 피어있는 연꽃을 보고 예전에 물가에 가서 연꽃을 따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또 오늘 전투에서 적들을 물리친 승전을 거두었으며 내일에도 엄한 군사들을 보내 적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1593년(선조 26) 봄에 사인 呂永明은 경략 宋應昌을 수행하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얼마 후 車輦村에서 李廷龜와 만나 시가를 수창했다.¹³⁾ 가을에 양남의 전황을 살펴보기 위해 남원으로 내려왔고, 겨울에 영남 일대를 둘러보고 한양으로 올라갔다.¹⁴⁾ 《용성지》와 《남원읍지》에 여명명이 광한루에서 남긴 〈上漢槎〉가 수록되어 있다. 아래에 전문을 들어본다.

節鉞何年建此樓	어느 해에 사또가 이 누를 세웠느냐
我來登上政新秋	갓 접어드는 가을에 이곳에 올랐도다
旌飛北塞黃雲淨	기는 북방 변새로 날리고 누른 구름이 맑구나
劍倚南天紫氣浮	칼은 남방 하늘 의지하여 자색 기운이 떠오르네
忽覩兵塵閑異境	홀연 병란 만나 이국땅 경계에서 한가롭게

13) 《月沙集》 권1 〈到車輦村, 遇呂相公永明, 携酒話穩, 呂出一詩, 次韻贈之〉.

14) 《선조실록》 26년 윤11월 7일(정해)조.

喜觀文物似中州 중국 같은 문물을 즐겨 보는구나
 他時走馬陰山路 다른 날 말 타고 陰山 길을 지나
 剪取長鯨奠海陬 고래를 잡아 바다 끝에서 제사 지내리

《사암실기》에 상기 시의 저자를 천만리, 시체를 〈登南原廣寒樓〉로 적고 있는데, 이 또한 책자의 편찬시기가 늦고 자료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저자를 여영명으로 봐야한다. 여영명은 초가을에 멀리 타국으로 나와 전쟁 수행 차 떠돌아다니다가 남원 광한루원에 들어와 호수에서 뗏목을 타고 휴식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시편으로 읊었다. 병란을 상징하는 것발이 북방 번새를 날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칼날이 남방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오늘 기이한 광한루원에서 중화와 같은 문물을 감상하고 있지만, 내일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 바다에서 고래, 즉 일본군을 무찔러 종묘에 승첩 제사를 지내겠다며 자신감을 토로했다.

IV. 永思亭



永思亭

永思亭은 남원 金池面 宅内里 内基마을에 소재한다. 고리봉에서 갈라진 줄기가 금지평야와 맞닿은 지점에 정자가 세워져 있어 주변 경관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정자 아래에 널따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들판 가운데 요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1553년(명종 8)에 安瑒이 부친 安處順의 묘소를 향해 망배하기 위해 영사정을 세웠다.¹⁵⁾ 정자 서쪽에 안

15) 《용성지》 권2 〈永思亭〉: 「在金岸坊竹巖. 處士安瑒爲望先塋所建也.」

처순의 묘소가 있다.

영사정은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 교류의 장소 중의 하나였다. 鄭澈, 梁大樸, 尹斗壽, 金麟厚, 梁士衡, 林悌, 李後白, 李彦憬, 奇大鼎, 韓浚謙, 林悌, 安璋, 安斑, 安畱 등 많은 명사들이 영사정을 들러 제영 또는 화운시를 남겼다. 이밖에 양대박의 <永思亭八詠> 화제를 그림으로 담은 <永思亭八景圖>가 전해오고 있다. 영사정에 명 사신 朱之蕃이 ‘永思亭’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있다.¹⁶⁾

영사정은 남원과 순천, 구례를 오가는 육로 교통로에 자리하고, 특히 영사정 앞의 요철은 섬진강의 지류로 내수로 교통로가 형성되어있다. 임진왜란 때 명 장수들이 자주 풍광이 뛰어난 영사정을 찾았다. <<용성지>>에 查大受, 吳宗道の 시가 수록되어 있고, <<梅潭實紀>>에 사대수, 오종도의 시 외에 여영명의 시가 더 수록되어 있다.

사대수는 鐵嶺衛 출신이다. 1593년(선조 26)에 명 군부의 명을 받아 화포와 군사들 거느리고 남원으로 내려왔다.¹⁷⁾ 동년 7월에 金岸 영사정에 진을 치고 한동안 머물렀다.¹⁸⁾ 이때 전란에 쓰라린 사적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심산한 마음을 토로한 칠언율시를 남겼다. <<용성지>>에 수록된 <영사정>을 들어본다.

永思亭上啓朱扉	영사정의 붉은 사립문을 열고
入座玲瓏爽籟飛	영롱한 자리 앉으니 상쾌한 통소소리 날아오네
巖下七松凝晚翠	바위 아래 일곱 소나무엔 만취가 영글고
庭前踈月浸餘輝	뜰 앞 성긴 달엔 남은 빛이 스며드네

16) 전북 지역에 주지번이 쓴 편액으로 남원 금지면의 ‘영사정’ 외 전주 시내의 ‘豊浦之館’, 익산 왕궁면 宋英壽 고거의 ‘望慕堂’ 등도 있다. 일부에서는 주지번이 한양에서 남행하여 글씨를 썼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1606년(선조 39)에 주지번은 황태손 반조정사로 들어왔다. 사행 노선을 보면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들어왔고, 또한 반조를 마치고 한양을 떠나 북상하여 압록강을 통해 본국으로 들어갔다.

17) <<선조실록>> 29년 2월 19일(갑진), 8월 3일(갑신), 8월 8일(기축)조.

18) <<난중일록>> 기사년 7월 6일조.

靑城霸業殘還復 청성의 패업은 스러졌다 다시 세워졌건만
 芳草王孫去不歸 방초의 왕손은 떠났다 돌아오지 않네
 千古興亡多少恨 천고의 흥망이 얼마나 한스러운가
 夕陽和淚濕人衣 석양에 눈물 흘러 옷깃을 적시네

《사암실기》에 사대수가 상기 시를 광한루에서 지었다고 했는데, 시의 첫 구절 ‘永思亭’에서 보듯이 영사정에서 지었다. 전반부에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했다. 해질녘에 영사정에 올라 붉은 사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보니 앞쪽으로 널찍한 금지평야, 뒤쪽으로 푸르른 산림이 펼쳐져 있어 마음이 자연히 상쾌해졌다. 이날 소나무에 스치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소리가 마치 상쾌한 통소소리처럼 들려오고 뜰 앞에 떠있는 성긴 달의 남은 빛이 비쳐오고 있어 마음이 한층 더 좋아졌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옛 시인들이 널리 애용한 왕손 소재를 끄집어내면서 시의 반전이 이루어졌다. 왕손 소재는 남조 송 謝靈運의 〈悲哉行〉, 당 白居易의 〈賦得古原草送別〉, 송 李重元の 〈憶王孫〉에서 보듯이 멀리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왕손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았다. 여기에서는 나라가 망한 왕손으로 묘사했다. 전란에 휩쓸린 조선의 모습을 목도한 사대수는 왕손이 천고의 흥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석양을 바라보고 눈물로 옷깃을 적신다며 애잔한 노래를 불렀다.

오종도는 紹興府 山陰縣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여러 차례 남원을 들렀다. 어느 해 가을날 황혼이 찾아올 때 홀로 영사정에 올라 난간에 기대며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자신의 신세를 돌아켜보는 시편을 남겼다. 일본군을 섬멸하라는 황명을 받들고 만리타국에 왔지만, 아직까지 戰火가 언제 멈출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저 멀리 요해 바다 건너편에 황궁이 있고, 또 구름 걸린 저 산 너머에 고향집이 있기에 왕사와 향수를 달래고자 노래를 지어 읊었지만, 마음이 심란하여 흰머리만 더하는 슬픔에 잠겼다.¹⁹⁾

19) 《용성지》 권8 오종도 〈영사정〉: 「萬里征人暫倚樓, 黃昏獨坐晚風秋, 千山蒼

여기에서 오종도가 한편으로 왕사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593년(선조 26) 가을에 여영명은 남원성 밖 호젓한 거처로 알려진 영사정을 자주 찾았다. 한 번은 영사정에서 그 자신이 은사가 된 느낌을 받아 시가로 읊었다. 영사정으로 올라가는 길에 덩굴이 석벽을 타고 들어 있고, 영사정에 걸린 주렴 사이로 푸른 도량이 비치었다. 신선한 날씨에 세속의 티끌을 찾아볼 수 없고, 낙엽이 영사정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산신령이 속세의 객을 시샘이라도 하듯 가을바람이 나그네의 수레를 재촉한다.²⁰⁾ 여기에서 여영명이 영사정의 주변 풍광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V.龍頭亭과 釣磯

남원에는 승경지로 알려진 또 하나의 정자인 龍頭亭이 있다. 용두정은 선조 초 房應淸이 龍頭山에 세웠다고 전해온다. 1871년(고종 8)에 작성된 《湖南邑誌》가 있다. 여기에 용두정과 龍鬪山이 보인다.

용두산은 현 남원 주생면 池塘里의 주산이다. 용두산에 올라보면 주변에 펼쳐진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다. 남쪽에 요천, 서쪽에 요돌천, 즉 두 개의 하천이 용두산을 감싸며 유유히 흐르고 있고, 또 하천 주변으로 널찍한 평야와 조그만 연못들이 형성되어 있다. 용두정은 조선 고종 이후에 훼멸되었다.

1598년(선조 31)에 명 제독 유정은 용두정에서 바라보는 뛰어난 경관이 중국의 절경지인 蘇州와 杭州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며 칭송했다.²¹⁾ 용두

翠何年盡，四壁烟花此地收，丹鳳帝城遼海闊，望雲親舍越山幽，不堪抱樹增悲韻，搔首中華坐白頭。」

20) 《梅潭實紀》(《竹溪世蹟》 권2) 중 呂永明〈永思亭天將題詠〉: 「南原城外結幽居，知是無人日曳裾，三徑碧蘿浸石壁，一簾疎影暎青渠，紅塵不到人無暑，落葉飄來室自虛，無乃山靈妬俗客，秋風一夜促征車。」



《(1871)湖南邑誌》 중 龍頭亭

산 건너편은 명 유정의 군사가 주둔한 龍鬪山이다. 오늘날 용투산 일대에 명군들이 진을 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용투산 아래에 명장이 못에 종을 빠뜨렸다고 전해오는 鍾沈淵이 있었다. 종을 빠뜨린 명장은 용두정을 찾아본 유정이거나 釣磯에서 낚시를 한 沈惟敬일 것으로 추측된다.

용두정 아래에 낚시터로 사용된 널찍한 바위인 조기가 있었다. 현재 조기가 있었던 정확

한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두산과 요돌천이 맞닿은 곳임이 분명하다. 1597년(선조 30) 4월에 심유경은 대자로 쓴 ‘釣磯’를 새겨 놓고, 그 옆에 발문을 적어놓았다.²²⁾ 그 발문을 옮겨본다.

予于山水烟霞，了然不著，已久相忘。偶涉是處，境緣以生，遂名石曰：釣磯。意闊浮提中三千大千世界，何不是境，何不是幻。若以釣爲釣，以磯爲磯，則又境之幻之幻矣。釣叟思之不？

내가 산과 물, 안개와 노을에 명확히 알지 못해 오랫동안 서로 잊어버렸다. 우연히 이곳을 건너다가 드디어 인연이 생겼다. 그 돌에 명명하기를 ‘釣磯’라고 했다. 영부제중의 삼천대천세계가 어찌 이 경계가 아닐 것이고, 어찌 이 환상이 아닐 것이냐? 만약 낚시를 낚시로 삼고, 낚시터를 낚시터로 삼으니 또한 경계의 환상 중의 환상이다. 낚시 늪은이가 이를 생각하지

21) 《용성지》 권2 〈龍頭亭〉: 「唐將劉綎登臨曰: 蘇杭之勝, 無過於此。」 이 기록은 《南原邑誌》(규17401본)에도 보인다.

22) 《용성지》 권11 〈釣臺〉: 「刻在龍頭亭左, 大書額字. 萬曆二十五年四月日浙西惟敬書。」 만력 25년은 1597년(선조 30)에 해당된다.

않았겠느냐?

심유경은 절강 嘉興 출신의 장사꾼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교담당관을 주창하는 계책을 올려 병부상서 石星에게 발탁되었다.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거하자 명 군부가 심유경을 유격장군으로 삼아 강화협상을 펼치도록 했다. 심유경은 일본 小西行長과 강화협상을 펼치는 동안 명 군부가 자국의 군사를 동원하는 준비 시일을 벌어주는 공을 세웠다.

백제관 전투 이후 4년 동안 지루한 명일강화회담이 펼쳐졌다. 심유경은 양측 사이에 교묘한 농간을 부리며 회담을 주도하며 한때 豊臣秀吉을 책봉하는 책봉부사가 되어 일본열도까지 들어갔지만, 끝내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 군부에 의해 나포되었다. 1597년(선조 30) 초에 석성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다시 조선으로 나와 한동안 남원 일대에서 머물면서 일본 진영과 접촉하며 다시 회담을 시도하였다.

심유경이 석각을 새긴 시점은 1597년(선조 30) 4월이다. 이때 심유경의 처지는 한마디로 심한 곤경에 빠졌다. 小西行長을 비롯한 일본군 진영과 접촉하며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뽀족이 풀어나갈 방도가 없었다. 당시 일본 군부는 豊臣秀吉의 명에 따라 조선을 재침하여 전면 공세를 취하고 있었고, 명 조정과 군부도 주전파가 득세하면서 더 이상 일본과 강화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더구나 심유경은 그동안 저질렀던 농간이 폭로되어 극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강화파 석성의 도움으로 구제되었다.

심유경이 남원에 머물 때 잠시 마음을 달래고자 용두정을 찾아 조기 바위에 서서 지금 처해있는 곤경을 골몰히 생각했다. 예전에는 산과 물, 안개와 노을 등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이제야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자신은 왜 낚시하는 늙은이처럼 자연을 벗 삼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곧이어 심유경은 宜寧에 가서 小西行長과 접촉하며 일본 진영으로 탈출을 모색하려다가, 명 군부로부터 명을 받은 楊元의 부하에게 붙잡혀 요동으로 끌려가 끝내 극형에 처해졌다.

《용성지》에 인조 연간에 남원 출신 梁振翻이 조기에서 낚시질한 명장 유정의 사적을 떠올리며 지은 〈劉艇釣磯〉가 수록되어있다. 이 시에서 임진왜란 때 천자가 장수들을 조선에 보내 일본군을 물리쳐 서광을 비추어 주고, 또한 조기에서 낚시질하는 유정의 늙은 모습을 그려놓았다.²³⁾ 이것으로 용두정을 찾은 유정도 강가에 있는 조기에서 낚시질했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Ⅶ. 範谷 天使臺와 長法山

명나라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명일강화회담 끝에 일본에 책봉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1595년(선조 28) 4월에 정사 李宗誠, 부사 楊方亨이 조선에 들어왔다. 이듬해 4월에 부산의 일본진지에 머물고 있던 이종성이 일본과 협상이 난항을 겪고 목숨에 위협을 받자 몰래 탈주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양방형을 정사, 심유경을 부사로 삼아 일본을 다녀오게 했다.

책봉정사 이종성이 남원으로 들어왔던 시점은 1595년(선조 28) 6월이었다.²⁴⁾ 접반사 李恒福은 남원부에 머물고 있는 이종성의 접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주었다. 한번은 이종성을 데리고 남원 동쪽 10리 떨어진 範谷 일대를 유람하였다. 범곡은 현 남원 주천면 虎基里 범실마을이다. 일명 범곡 또는 호곡마을이다.

이종성이 범곡 일대를 유람한 기록은 《용성지》 〈天使臺〉에 자세히 나와 있다. 천사대 명칭은 이종성이 머물렀던 데에서 나왔다. 천사대 아래 魚藪川의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풀어놓고, 또 북쪽

23) 《용성지》 권9 梁振翻 〈劉艇釣磯〉: 「山擁龍頭勢, 江圍釣叟磯, 東樞昔兵燹, 北闕振天威, 腥霧秋霜急, 鯤岑瑞日輝, 帶方雄控引, 楓岳入旌旄, 翠壁臨空矗, 仙毫得意揮, 寒波噴巨石, 蒼蘚蝕珠璣, 恤小當時義, 朝宗此日違, 回頭遼塞外, 一爲淚沾衣。」

24) 《선조실록》 28년 6월 26일(정묘)조.

猪轉山에 멧돼지와 꿩을 잡아 풀어놓았다. 그러나 이종성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기색이 없다가 잠수하는 사람이 자라를 잡아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²⁵⁾

범실마을 앞에는 요천, 옛 어수천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 부근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천사대가 있었던 장소로 보인다. 마을 건너편이 해발 456m가 되는 長法山이다. 이 일대가 경관이 뛰어나고 산세가 완만하여 오늘날 많은 등산객들이 탐방하고 있다. 이종성 기록에 나오는 저전산은 장법산의 한 줄기로 추정된다.

또 이종성은 이 일대의 산수를 살펴보고는 이곳이 은사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다. 접반사가 저전산 아래에 은사 柳仁沃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하자, 이종성은 즉시 유인옥의 집에 찾아갔다. 유인옥은 황관을 쓰고 야복을 입고 이종성을 맞이하여 산과로 대접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환담이 무르익을 때 유인옥이 시를 한 수 지어주자, 이종성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지은 문집 1권을 주었다.²⁶⁾

이때 이종성이 받은 느낌은 남달랐다. 주변에 펼쳐진 수려한 경관과 그윽한 운치에 한껏 취해 이곳이 은사가 사는 곳이라며 은둔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차에 은사가 나타나 반갑게 자신을 맞이하고 산에서 채취한 과실로 대접해주고 시편을 지어주니 그 자신도 마치 은사가 된 듯이 마음이 흔쾌했다. 나중에 이종성이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책봉 본임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과오를 저질렀지만, 이때만큼은 한 명의 문사로서 조선의 은사와

25) 《용성지》 권4 〈古跡·天使臺〉: 「在府東十里範谷村前. 萬曆倭亂時, 天使李宗城觀獵于此臺, 故名焉. 臺下有水, 名曰魚藪川水, 北有山, 名猪轉山. 盖天使將遊于此, 伴使豫求錦鱗銀屑儲于水, 又捉山猪·野鷄藏于山, 及天使臨觀, 舉網捉魚, 魚多得, 彎弓射猪, 猪轉而下. 天使觀之, 了無喜色, 唯潛水者捉鱉而出, 則大喜。」

26) 《용성지》 권4 〈古跡·天使臺〉: 「天使周覽山水, 曰: 眞隱士之所盤, 旋此間, 豈有隱居者存乎? 伴使言彼山中果有之, 若欲見之, 招來可乎? 天使曰: 隱士, 豈敢招乎? 吾當躬詣, 盖其時進士柳仁沃, 居于長法山下, 與臺相望之至, 而仁沃多識見, 有風采, 天使遂造其廬, 納幣, 柳以黃冠野服出迎松關, 以山果待之. 天使與語甚敬。」

풍류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소탈한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훗날 남원 출신 盧亨望과 부안 출신 崔厚載가 각각 범곡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읊은 시를 남겼다.

VII. 葛峙 天使峰

임진왜란 때 남원 지역에 명조 천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유적이 있다고 전해온다. 《용성지》에 의하면 天使峰은 葛峙坊에 있으며 정유재란 때 宋大猷이 봉우리에 올라서 낮잠을 잤다고 해서 명명했다고 했다.²⁷⁾

송대빈은 廣寧 右衛 사람이다. 1593년(선조 26) 정월에 欽差統領宣大入



《(1872년)南原府地圖》 중 葛峙

衛班兵游擊將軍으로 마병 2천 명을 거느리고 왔다가 1594년(선조 27) 정월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²⁸⁾ 1593년 5월에 호남으로 내려가 남원 일대에 머물렀다.²⁹⁾ 7월에 구례로 이동했다가 다시 남원으로 돌아갔다.³⁰⁾ 10월에 함양을 지나 거창으로 갔다.³¹⁾ 천사봉은 이름에서 보듯이 명 사신과 관련된 유적이는데, 송대빈은 장수이지 사신이 아니다. 어딘가 착오가 있

27) 《용성지》 권1 〈山川〉: 「天使峯, 在葛峙坊. 丁酉倭亂時, 天使宋大猷登睡峰上, 故名焉。」

28) 《상촌선생집》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29) 《난중잡록》 계사년 5월조.

30) 《난중잡록》 계사년 7월 3일조 및 《선조실록》 26년 7월 20일, 8월 8일조.

31) 《孤臺日錄》 계사년 10월 8일조.

는 듯하다.

천사봉이 있는 갈치방은 어디인가? 《용성지》에 갈치방은 東面 소속으로 15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³²⁾ 1872年(고종 9)에 작성된 《南原府地圖》에 갈치 지명이 보인다. 오늘날 남원시 소속에 갈치동이 있고, 또 갈치동에 고산봉의 동쪽 기슭인 갈치재가 있다. 갈치 지명은 흠이 많이 나는 데에서 따왔다.

《용성지》에 갈치방에 처사 韓正吾의 정자인 怡顏亭이 있다고 했다.³³⁾ 일부에서는 이안정의 소재지가 넓은 들이 바라보이는 요천가 언덕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³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예전에 갈치방의 행정구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갈치 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재의 아래쪽에 요천의 지류가 흐르는 하나 넓은 들이 보이지 않는다. 갈치 일대는 훗날 갈치면에 속했다. 1914년에 왕치면으로 편입되었고, 1956년에 또 다시 남원읍으로 편입되었다.

VIII. 屯德 金復興宅

둔덕마을은 현 남원과 임실 경계에 소재한다. 예전에 남원부 屯德坊였는데, 1906년에 임실군으로 편입되었다. 상급 행정지가 임실군 南面, 屯南面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가, 1992년에 오산면으로 편입되었다. 둔덕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었다. 마을 뒤쪽에는 지네형을 하고 있는 長城山의 줄기가 뻗어있고, 앞쪽에는 오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으며, 천의 양편으로 비옥한 들녘이 있다. 백제시대부터 형성된 둔덕마을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고려시대에 순천 김씨, 진주 하씨,

32) 《용성지》 권1 〈坊名〉: 「東面: 葛峙十五里.」

33) 《용성지》 권2 〈樓亭〉: 「怡顏亭, 在葛峙坊. 處士韓正吾之亭.」

34) 〈南道 정자기행(3424) ... 남원 이안정(怡顏亭)〉, 《한국매일신문》, 2016년 04월 08일자.

홍성 장씨, 남원 양씨, 삭령 최씨 등이 들어와 살았고, 조선 연산군 때 전주 이씨가 입주하여 크게 번창했다. 1500년(연산군 6) 경에 春城正 李聃孫이 지은 것을 나중에 여러 차례 보수한 李雄宰 고가가 남아 있다.

1593년(선조 26) 7월에 명 提督府參軍 呂應鍾은 일본군이 진주를 공략한다는 정보에 따라 한양에서 내려와 남원성 밖 40리 떨어진 둔덕으로 들어왔다. 여응중이 권율에게 이 산중에 머물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으니, 권율이 글을 많이 읽은 김생의 집을 천거했다. 김생은 여응중이 일전에 경상도 선산에서 만난 적이 있는 別坐 金復興이었다. 김복흥은 유학에 뜻을 두었고, 시, 서, 육예에 통하였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흥금을 털어놓고 평생의 지기로 삼았다.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헤어지게 되자, 그대는 조선 사람이고 나는 중원 사람이라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다며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러다가 남원 둔덕에서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저녁에 김복흥이 술상을 차려놓고 여응중과 함께 수려한 주변 풍광을 즐기면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이때 여응중은 김복흥에게 시와 서문을 지어 주었다.

서문 속의 김복흥의 집은 한마디로 별천지였다. 단청한 누대가 녹음 속에 보일락 말락 하고, 천 그루의 큰 교송과 만 갈래의 긴 대나무가 들어서 있어 그윽하고 아담하였다. 그 가운데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벽에 좌우명으로 여긴 ‘和平弘毅’라는 글씨를 써놓았다. 이곳에 사는 주인은 참된 선비이다. 예법으로 몸을 다스리며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때로는 가야금을 타고 때로는 통소를 부르며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그의 아들도 영기가 가득하고 강개가 뛰어나서 장차 나라의 원수를 갚을 청년이었다. 한번은 김복흥이 여응중에게 문기를 난리가 이에 이르렀는데 언제 태평하게 되느냐고 물으니, 여응중은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며 천하가 장차 반드시 크게 어지러울 것이라 자신도 무이산으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³⁵⁾ 아쉽게도 오늘날 둔덕마을에서 명 참군 여응중이 찾았던 김복흥의 고거는 찾을 수 없다.

35) 《난중잡록》 계사년 7월 9일조 및 《용성지》 권10 〈唐將呂應鍾贈金復興詩序〉.

끝으로 남원에 남겨진 명장 유정의 사적을 약술해본다. 유정은 여러 차례 남원을 들렀다. 1593년(선조 26) 5월과 이듬해 3월에 두 차례 女院峙를 지나가면서 각각 바위에다 이곳을 지나간다는 글자를 새겨놓았다. 1594년(선조 27)에 남원 인사들이 유정이 지역민에게 베풀어준 청덕을 기리는 <天將劉都督緹碑>를 세웠다. 1598년(선조 31)에 용투산에 주둔하면서 경관이 뛰어난 용두정을 찾아보고 그 아래 조기에서 낚시질했다. 1599년(선조 32) 정월에 명장 藍芳威가 창건한 관왕묘를 중수하고 <漢壽亭侯廟碑>를 세웠다.

IX. 결 론

임진왜란 때 남원은 호남 보장에 큰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란 초기부터 많은 명군들이 남원에 들어와 주둔하며 호남 지역을 방어하거나 영남과 남해안으로 오가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였다. 남원에 들어온 명군 인사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나 조선 인사들과 만나면서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 현존하는 남원 관련 문헌에서 명군들이 남겼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명군 인사들과 관련된 남원의 장소를 열거해보면 용성관, 사영루, 광한루, 영사정, 용두정, 조기, 용투산, 범곡 천사대, 저전산, 갈치 천사봉, 둔덕 김복흥택, 여원치, 관왕묘 등이 있다. 오늘날 이들 장소를 찾아보면 상당수가 유적 자체가 사라졌거나 명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소수이지만 아직까지 옛 흔적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여원치에 명 유정이 새긴 석각이 남아있고, 명군이 세운 관왕묘는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광한루와 영사정은 현존하지만 아쉽게도 명군들이 적은 편액이나 유적을 찾아볼 수 없다.

명군 인사들이 남원에 남겼던 기록의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왕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이다. 송대빈이 광한

루에서 지은 시, 심유정이 조기에서 남긴 발문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송대빈은 왕사를 충실히 수행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펼쳤고, 심유정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인하여 초초한 심정을 토로했다. 둘째, 고향을 그리는 소감이다. 진홍운이 사영루에서 고향을 그리며 지은 시가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이역타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명군들이 공히 느끼는 심정이다. 셋째, 조선 인사들과 교유한 소감이다. 여흥종이 김복흥과 만나 지은 문장이 여기에 속한다. 명 인사들이 조선 재야인사들과 만날 때는 조선 관인들과의 만남에서 볼 수 없는 애뜻한 느낌을 받았다. 넷째, 명군 인사들의 활동 기록 등이다. 범곡 천사대와 갈치 천사봉 고사가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본 논문을 마감하며 느꼈던 소감과 제안을 덧붙인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다. 비록 조선국이 전란의 고통과 막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명군의 참전으로 우방국 인사들 사이에 국제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원에는 명군들이 활동한 유적이거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명군의 유적이거나 기록을 타국의 문화유산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집어넣고 보다 많은 관심과 이를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南原府 撰, 《南原邑誌》, 조선후기편찬본, 규장각장본(奎17401)
 南原府 撰, 《南原府地圖》, 1872년(고종 9) 초본, 규장각장본(奎10484)
 安思訥 等撰, 《竹溪世蹟》, 1902년(광무 6) 간본, 국립중앙도서관장본(c13647-66)
 李燾·崔與天 等撰, 《龍城誌》, 조선후기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장본(BC古朝62-42).
 千珥洛編, 《思庵實記》, 1910년(융희 4) 간본, 국립중앙도서관장본(古2511-81-5)

湖南府邑 편, 《湖南邑誌》, 1871년(고종 8) 초본, 규장각장본(奎12175)
《亂中雜錄》, 《象村先生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月沙集》, 《宣
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DB본.

< Abstract >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works and remains related to Ming soldiers(明軍) in Namwon(南原) province during the Imjin War(the Japanese invasion in 1592~1598; 壬辰倭亂).

Namwon was one of the fierce battlefields during the Imjin War. Many Ming soldiers were stationed in Namwon, and they used Namwon as a gateway of transport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A lot of records on Ming soldiers are found in the literature, and some remains of Ming soldiers are still discovered to this date, if not many.

There are some places related to Ming soldiers such as Yongseong-gwan(龍城館), Sayeongru(四詠樓), Gwanghanru(廣寒樓), Yeongsajeong(永思亭), Yongdujeong(龍頭亭), Jogi(釣磯), Yongtusan(龍鬪山), Cheonsadae(天使臺), Jeojeonsan(猪轉山), Cheonsabong(天使峰), Dunduok(屯德) Kim Bokheung House(金復興宅), Yeowonchi(女院峙), and Gwanwangmyo(關王廟), etc. The record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thoughts that they felt while performing national affairs, the longing for their hometowns, the impressions of Joseon people, and their military activities.

The records and remains are all our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se and to actively utilize them as resource.

Key Words : 壬辰倭亂(Imjin Wa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1598),

南原(Namwon), 明軍(Ming soldiers), 龍城館(Yongseong-gwan), 廣寒樓(Gwanghanru), 永思亭(Yeongsajeong), 龍頭亭(Yongdujeong)